

조선대병원에 경증 응급실

(輕症)

야간·공휴일 경증 환자 대상 ... 18일부터 운영 10개 진료과 교수 당직근무·전담 간호사 배치

야간과 공휴일 응급의료센터를 찾는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야간·공휴일 경증환자 응급진료실(이하 경증환자 응급실)'이 오는 18일부터 조선대병원에서 운영된다.

조선대병원은 14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조선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8개 병원을 경증환자 응급실 운영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조선대 병원이 유일하다.

조선대병원은 현재 응급실 옆에 경증환자 응급실(70㎡)을 설치, 10개 진료과의 교수들이 당직 근무하며 3명의 전담 간호사가 배치된다.

경증환자 응급실은 병원 진료과 끝난 야간이나 공휴일에 크게 다치지 않은 환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됐다. 진료시간은 ▲평일: 오후 5시30분~다음날 오전 6시30분 ▲토요일: 낮 12시30분~오전 8시30분 ▲공휴일·일요일: 오전 8시30분~오전 8시30분(24시간)이다.

이와 함께 조선대병원은 응급환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는 물론 대기시간을 단축키 위해 중증 외상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응급외상팀'을 구축하는 등 응급진료 시스템을 대폭 개편했다.

오는 18일부터 가동하는 '365응급

외상팀'은 다발성 외상 및 중증 환자가 방문할 경우 대기시간과 진료 및 촬영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정확한 치료를 제공키 위해 꾸려졌다.

15개 진료과 37명의 교수들로 꾸려진 '365응급외상팀'은 다발성외상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면 상태에 따라 대기 중인 각 과의 의료진에게 비상연락망을 가동, 빠른 시간 내에 협진을 해 치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응급외상팀의 환자는 접수와 치료, 촬영 등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돼 사망률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김만우 조선대병원장은 "환자들의 신속하고 적절한 진료 및 치료할 수 있는 응급 진료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김윤수 전남대 총장 'C+'

교수평의회 평가 ... 5점 만점에 평균 2.84점

교수 427명 참여

전남대 교수들은 김윤수 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해 대체로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 평의회가 최근 발간한 김 총장의 중간 업무점검(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김 총장은 포괄적 평가인 '환경변화에 대한 총장 인식의 적정성과 대학 발전 기여도'에서 5점 만점에 평균 2.84점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교수 1143명 중 427명(37.4%)이 참여했다. 모두 16개 항목인 선거 공약 분야별 평가에서는 '학생 인성 및 교육감화'가 3.2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광주-여수 캠퍼스별 특성화 전략 추진정도'

는 1.86점으로 최하위 평점을 받았다.

또 교직원·학생 복지향상도(2.41점), 구성원 의견수렴(2.42점), 장기적 연구지원 시스템(2.43점), 지역사회 발전기여도(2.55점) 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취업을 제고를 위한 시스템은 3.11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 밖에 대학재정운용 효율성(2.86점), 우수학생유치전략(2.82점), 단과대학 권한신장(2.70점), 내실있는 국제화 준비(2.61점) 등이었다.

직급별로는 정교수 2.74점, 부교수 2.91점, 조교수 3.14점 등으로 직급이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01분 해질 19시 04분 달돋이 15시 54분 달질 03시 43분

낮엔 더워요
오전엔 산발적으로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지역	기온
광주	흐린뒤맑음 11/23℃
목포	흐린뒤맑음 11/18℃
여수	흐린뒤맑음 12/18℃
나주	흐린뒤맑음 11/23℃
완도	흐린뒤맑음 10/20℃
구례	흐린뒤맑음 10/20℃
장흥	흐린뒤맑음 10/21℃
순천	흐린뒤맑음 11/22℃
영광	흐린뒤맑음 11/19℃
진도	흐린뒤맑음 10/20℃
전주	흐림 11/20℃
군산	흐림 9/17℃
남원	흐림 9/20℃
옥산도	흐린뒤맑음 8/15℃

바다	중랑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꽃가루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보통	주의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0~1.5m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6(토)	17(일)	18(월)	19(화)	20(수)	21(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7/19	7/19	6/14	6/16	6/18	7/20

보성 용정중서 호주 입양가족 '뿌리찾기'

40여명 참여 한달간 행사 황인수 교장 사비로 진행

전남 농촌의 한 중학교가 해외 입양 자녀와 그 부모를 초청, 모국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키로 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4일 전남도교육청과 용정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는 오는 18일 호주로 입양된 청소년과 가족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1개월 동안 '뿌리찾기' 행사를 연다. 행사 참가 청소년들은 9살에서 14살까지로 모두 입양된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용정중학교, 제암산 자연휴양림 등지에서 오는 5월13일까지 숙

식하면서 또래 아이들과 교육과 체험 활동을 벌인다.

재외동포재단이나 일부 대학 등이 재외동포 입양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성인이 대부분이고 체류기간도 2~3일 정도로 시골 중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행사 참가자들은 국어와 국사, 지리 등 기본교과와 수업 관람은 물론, 전통악기 연주, 사물놀이, 다도체험, 도자기 빚기, 국산도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용정중 황인수 교장(전 전남도부교육감)은 사비를 털어 행사 비용을 마련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14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근로정신대 문제해결을 위한 10만 희망릴레이 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굴욕의 역사를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잡겠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최현해기자 choi@kwangju.co.kr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 시민 힘으로"

10만 희망릴레이 광주운동본부 출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4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 27개 단체와 함께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10만 희망릴레이 광주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광주시민센터 장연주 공동대표와 고요종 전교조 광주지부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열세살 어린 나이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끌려가 강제노

역을 당한 할머니들의 어려운 싸움을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며 "분노만으로 역사가 바뀌지 않듯 시민들의 힘으로 투쟁기금을 마련해 굴욕의 역사를 바로 세우자"고 동참을 당부했다.

문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http://cafe.daum.net/1945-815>)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서울 종로점 OPEN

[국제보청기]
서울 종로점을 4월5일 개점하였습니다!

지방에서 보청기 사용중 불편사항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이연안과 옆)

총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중앙시장 앞)

목포점 061-262-9200

스마트한

바로 지금! 세상이 열린다!

ALL-IN-ONE SERVICE (음원원서비스)

오프라인 지면광고에 수록된 QR코드를 이용하여 모바일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하고 또한 번외정보 여부를 통하여 번외정보 검색이 가능한 효과적 홍보방법으로 고객의 매출을 극대화하는 한국전 화보호부의 새로운 온,오프라인 통합서비스입니다.

음원원 서비스 상담 문의: (062) 514-1144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한국전화번호부주식회사
KOREA TELEPHONE DIRECTORY CO., LTD